

정읍시 '정향누리 향기 공화국' 만들기 총력

인향·성향·주향·미향·화향 오향
문화 콘텐츠 발굴 관광자원 활용
내달 21일까지 UCC 공모전

민선 7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향(井香)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만들기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은 정읍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건 오향(五香)이 주축인 정책사업이다. 정읍의 향기를 뜻하는 정향(井香)과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를 합성해 정읍의 향기가

은 세상에 퍼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읍의 오향은 인향(人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으로 정읍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전통 등을 아우르는 단어다. 즉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정체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다. 인향(人香)은 고운 최치원과 불우현 정극인, 정읍 현감 이순신, 전봉준 장군, 독립운동가 백정기·박준승 등 지역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성향(聲香)은 수제천과 정읍사, 우도농악 등 지역의 전통 음악을 말하고 주향(酒香)은 조선 3대 명주로 알려진 죽령고를 비롯해 막걸리와 복분자주 등 전통술을 뜻한다. 미향(味香)은 쌀과 한우, 생화차, 단풍미라 등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의 맛이고, 화향(花香)은 구

절초와 벚꽃, 라벤더, 피향정 연꽃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꽃을 가리킨다. 시는 이러한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관광자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을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뜻하는 오향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소개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읍의 오향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문화 콘텐츠 자원을 확보·보급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모는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전자메일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4~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개인 또는 팀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면서 타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UCC 동영상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7월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총 25팀에 대해 총 11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공모전을 통해 기존 관 주도의 사업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와 유틸리티를 발굴해 개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정향누리, 정읍의 오향을 원동력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동백특화숲 조성 월명공원에 10ha 규모



군산시는 월명공원에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올해 10ha 규모의 동백특화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월명공원 동백특화숲 조성사업은 군산의 시화인 동백나무를 활용해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작했다. 시는 작년부터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월명공원 오색정원과 수시탑 일원에 동백나무 2천248본을 식재했다. 또, 오는 2022년에는 10ha 규모의 동백나무 숲을 추가로 조성해 월명공원 내 총 30ha의 동백특화숲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동백나무 조림을 통해 공원경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며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존 조림사업과 더불어 특색 있는 지역 특화조림으로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군 스포츠방역단 운영 대규모 스포츠대회 잇단 개최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제25회 한국초등테니스회장기 테니스대회와 제5회 순창강전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제56회 전국주니어테니스 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해 4000여명의 선수단이 지역을 찾았다. 군은 선수단의 방문과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스포츠방역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출전선수에게는 건강확인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장 출입시 전원에게 발열체크, 기침 등 유증상확인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유소년야구대회 기간 중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조치를 강화해 성공 대회로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1 HAZZYS KIDS 꿈나무 테니스 대회'가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시장과 함께 도는 동네 한바퀴



지난 14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 '동네한바퀴'에 나선 이환주(가운데) 남원시장이 금지면 과수농가를 찾아 작물 생산상황을 살피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주민의견 수렴 소통행정 시정설명회 이어 읍·면·동 순회

남원시가 연초 시정설명회와는 별개로 다시 한 번 현장 중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소통행정을 펼친다. 남원시는 오는 7월30일까지 '이환주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를 실시한다며 이미 지난 14일 금지면을 시작으로 이 시장이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에 나섰다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수해가 극심했던 금지면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사업의 진척상황을 살폈고 복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에게 이 시장은 "우기 전까지 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한파 및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방문해 피해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농민들이 건의한 농작물별 재해보험 보상기준 마련과 보상액 상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은 "비대면 시정설명회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틀었다면 동네한바퀴 운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겠다"면서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3년간 월 30만원씩 근로청년수당

지역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 대상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익산시는 근로청년수당을 통해 일하는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역의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근로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매월 지역화폐인 '다리로움'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소상공인 사업장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지급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월평균 급여가 세전 270만원 미만, 주3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우편 또는 '청

년센터 청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방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분산 접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접수한다. 시는 유사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순, 월평균 급여액 낮은 순, 재직 기간이 긴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청소(063-859-7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꾸고 새꿈을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연중 모집

감축률 5% 이상 연 10만원 지급

고창군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이후 포인트는 인센티브(현금, 지역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되면서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창군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자는 9184세대로 고창군은 참여자 중 감축률 5% 이상 2740세대에 52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모두 1896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가입방법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확인 후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군 생태환경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이벤트 기간(17일~6월25일)동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강필구 고창군 환경정책팀장은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배출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환경 지키기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